

전북 기업유치 '허실' 보여주기식 협약 난무

이정린 도의원 "농업 투자 늘려야" 210건 협약 실제 투자 4% 불과 고용 창출 실적도 계획 대비 초라 지역 맞춤형 특례·균형발전 촉구

민선8기 기업유치의 허실이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최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8기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성과는 도민을 기만한 허상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협약 남발을 중단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총 210건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16조 5,251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8,662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투자액은 6,399억 원으로 계획 대비 3.9%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된 인력도 756명으로 4%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들은 '그 화려한 협약이 실제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가', '내 고향에 정말 공장이 들어서고 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는가'를 묻고 있다"며, "성과를 부풀린 기업유치 정책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그런 "전북자치도는 유치 기업에 무려 1,360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이제는 기업유치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농업과 농촌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원 운봉에서는 귀농인이 함께 들깨 가공품을 생산해 연매출 22억 원을 올리고, 완주에서는 청년 귀농인이 애플망고를 재배해 2억 원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성공 모델이 이미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유치에만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이라도 귀농귀촌, 후계농 창업,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면 역대 소득을 올리는 농부들이 늘어나고, 전북자치도는 오히려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 모든 권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

응해 동부권에 고령지 과수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이제는 기업유치라는 공허한 구호만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인정하고 귀농·귀촌인과 후계농 창업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야만 전북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전북사회복지대회 '상황'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공연장에서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주제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전북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 해외연수 의혹 말단 직원만 검찰 송치 논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공동범행 엄정 수사 촉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

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는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는 결코 실제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과연 말단 직원이 의원들의 영향력이나 지시에 의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스스로 거부할 수 있었는가.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형법은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관행이라는 미명의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인 만큼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역설

안호영 국토부 도로·철도국장 면담 "국가균형발전 차원 필수" 강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책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안호영 의원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로국장장과 철도국장은 "각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 지원

이달 10일부터 읍·면·동서 신청 농가당 최대 1만리터 한도 사용량 50%당 가격상승 40%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금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절반

(50%)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농가당 최대 1만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1호) 95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이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최근 1년간 경유 5,000리터를 사용했다면 이 중 절반인 2,500리터에 대해 리터당 87원이 적용돼 약 22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국제 유가 변동

으로 불안정한 농업 경영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정기 도의원 “새만금특별지자체 허상에 불과”

김 의원, 구성 성과 부재 지적
“정치력·정무능력 부재 탓”
김 지사 “출범 동력 마련할 것”

전북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김관영 지사가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다”고 전제한 뒤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정무능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는 이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지방시대위 ‘5극3특’ 전략과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며 “타 지역의 이런 대응은 전북 자치도에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



김정기 도의원

를 모아 대응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토론회,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도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전부다”며 “임기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지역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道, ‘전북도민평가단’ 3차례 운영…민선8기 공약 평가

무작위 50명 선정 10일 첫 회의
평가결과 외부 자문 객관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약사업 점검을 위한 도민평가단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전북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평가단 50명,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민평가단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공약사업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약 실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위한 도민평가단 구성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무작

위로 도민평가단을 선발했다.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평가단’을 주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사전 교육을 통해 평가단의 역할과 운영 원칙을 설명하고, 이어 5개 분임으로 나뉘어 정책환경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17개 공약사업을 안건으로 선정했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 공약사업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기본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소수 의견도 별도로 기록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도민평가단 50명,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평가단의 최종 결과를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심의에 부처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평가단에서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 계획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해 모든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민평가단 운영은 도민 참여로 공약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약 이행 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 신뢰받는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정책질의·추경예산 심사

“공공기관 이전 현황 답보” 지적
피지컬시 거점 필요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0일 기획조정실 등 소관 정책질의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했다.
먼저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최근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전북이 국가미래전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지컬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북이 빠르게 선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종복(전주3) 의원은 “전북도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55개 기관을 선정해 노력해왔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도의 노력 부족과 기관들의 이전 의사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로서는 국토부 발표를 기다려야할 수밖에 없는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지난 실적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재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자체 지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원·지도부 잇따라 면담

‘5극3특’ 전략 법·예산 지원 요청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우원식 국회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성애 정책위의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을 차례로 만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결과를 설명하고 법 개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계획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균형발전 예산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 16일 개최

도청 4층 종합회의실에서
정청래 대표·지도부 위원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청사 4층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더불어민주당 호남특위, 위원장 서삼석 최고위원)> 제1차 전체회의에 이어 11시부터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호남특위는 지난 8월 말 출범 후 첫 전체회의이고,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호남특위

위원장 서삼석 최고위원, 상임수석부위원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자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 김성장홍군수 및 50여명의 호남특위 위원들이다.
이어 같은 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주재하는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지사, 도의회 문승우 의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여 내년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 명 넘어서”…3년 새 두 배

폭행·성폭력, 최근 4년 지속 증가
한 의원 “학폭 증가에 지능화 우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섰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검거됐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같은 기간 6,000명에서 9,726명으로, 성폭력은



한병도 의원

2,879명에서 5,076명으로 늘었으며 모욕·명예훼손, 공갈 등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검거자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경기남부청(3,746명)으로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 접수는 2021년 3만 7,845건에서 2024년 4만 9,057건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학교폭력 증가와 범죄 지능화를 우려하며 경찰과 관계 부처가 협력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연환경연수원, 어린이 도슨트 생태 박람회 열어

안성초 5학년 10명 주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은 안성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0명과 함께 어린이 도슨트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수원의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들이 10주 동안 배운 생태 관련 주제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전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생물다양성 ▲생태모방 ▲곤충의 특징 ▲나비 한살이 ▲나비의 종류 등 5개 주제를 선정해 만화, 해설판, 개별·단체 게임 등 10여 개

의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곤충의 특징’ 조는 만화를 활용하여 어려운 개념을 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준비와 운영은 학생들이 주도해 진행했다. 학생들은 도슨트 역할을 맡아 자료 제작, 전시 기획, 해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협력과 소통을 경험했다.
이번 박람회 성과는 교내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5일부터 개최된 지역 ‘제29회 무주반딧불이축제’에서도 이어졌다. 학생 도슨트들은 축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생태 해설을 선보였다.

/장정철 기자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종이 **플라스틱** **빈병**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전주시, 민생예산 601억 원 추가 편성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전주시의회 제출

전주시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주시 올해 예산 규모는 총 2조 99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전주시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예산이다. 추가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537억원과 지역화폐 64억원이 반영된 총 601억원이다. 먼저 시는 소비쿠폰 2차분 지급개시일 9월 22일을 앞두고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준비할 예정이다. 2차분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외 전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2차분 소비쿠폰 역시 지난 1차분과 마찬가지로 34개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1·2차분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또 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국비 8%를 지원받아 기존 10%였던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3%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 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민생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이 적기에 집행돼 지역경제 소비 촉진 및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식 티켓 예매 오픈

오는 12일 오후 7시 티켓링크 무료 예매 가능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 개막식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다. 드론축구 월드컵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등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 슬로건과 함께 진행된다.

전주시는 오는 12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선착순 무료 예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발권 수수료가 신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32개국 선수단이 참가하며 전주시와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특히 드론축구의 종주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다. 전주시는 대회 개막식 25일 오후 6시

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개막선언 △선수단·심판대표 선서 △드론축구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라이즈(RIIZE), 아홉(AHOF), 아이칠린, 김희재 등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노상훈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은 “제1회 드론축구월드컵 ‘FIDA World Cup Jeonju 2025’는 전주에서 시작된 신개념 드론레포츠가 전 세계 30여 국으로 확대

되고, 국제드론축구연맹이 소재한 전주로 초대하는 역사적인 행사”라며 “이번 월드컵을 통해 드론축구가 K-콘텐츠로서 전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현장을 찾아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다채로운 공연을 함께 즐기며 전주의 특별한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김성규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하는 옥상 비가림시설을 불법건축물이 아닌 생활안전시설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재 건축법 등

은 비가림시설을 모두 무단 증축으로 간주해 주민은 반복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시설까지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고 실내공간으

로 사용하지 않는 비가림시설은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할 권한이 없어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까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모순”이라며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시민의 주거권과 생활편의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옥상 비가림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규정 △현행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제조항 포함 △정부의 생활형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제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률안 제정 촉구

정성길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성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

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86건에 달했고, 이 중 54건은 20세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위 법령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즉시 제정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박형배·최명권·최서연 의원 등 8명 의원 시정 현안 의견 제시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 의원은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다. 10일 박형배 의원(효자5동)은 어르신 등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는 차별 없는 전주사랑상품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사랑상품권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고령층은 앱 설치와 충전 경쟁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실제로 온라인 충전은 활발한 반면, 오프라인 충전은 미미해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의 재원확보 및 발행 규모 확대 △앱 사용자 환경(UI) 개선 △오프라인 충전 규모 확대 △선착순 충전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전주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보행로는 파손, 부실시공, 관리 미흡

등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복적인 임시 보수나 아닌 발주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도블록을 활용한 보행로 조성 △삼초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 마련 △관계 공무원의 현장 행정 강화 △충분한 공사 기간 반영 등을 제안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은 청년과 지역 산업을 살릴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11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철거와 협약 지연으로 3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전주시는 철거와 기본협약 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화 맨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심의 미관을 위해 설치된 ‘조화 맨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

린 실정”이라며 “전주시는 즉각 모든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간접흡연 위해성 홍보를 확대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흡연 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형 미래산업 융복합 전략 추진을 위한 통합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사업은 단순히 개별적·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점형 미래산업 플랫폼”이라며 “이를 사업을 거점형 미래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산업 거점 통합 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첨단산업·교육·연구 협의체 구성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청년 중

심의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현실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사회복지관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복지 거점이지만,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와 운영비 지원은 도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사에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보장하고, 복지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공연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문화 집적환경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주 공연 예술인들은 창작공간 부족과 높은 대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차원의 유희공간 리모델링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주시는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해 관람객과 지역 상권이 연결되는 문화 집적화를 추진하고, 팔복예술공장·쿠루스튜디오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해 예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태 기자



시중점 노면표시 <사진=전주시>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행환경 조성

신규 보호구역 4개소에 ‘시설 정비사업’ 추진

전주시는 새롭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에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할 전망이다. ‘시설 정비사업’ 추진은 지난 1일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2곳과 송천초등학교 후문 송천로 일원, 남초등학교 쪽문 학봉1길 일원을 포함한 4곳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지만 많은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상시 우려되는 곳으로서 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여건 분석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설 정비사업은 △보호구역

시·중점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구간 내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및 제한속도(시속 30km) 바닥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정비사업을 완료할 구상이다. 시는 올해 19억원을 들여 60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치 △엘로카펫 △통로로 개설 △바닥신호등 △방화호타리 등 교통신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시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75개 초등학교와 130개 유치원·어린이집, 4개 특수학교 등 총 209개소 시설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추진

24일까지 관할 구신청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집단급식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희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전주지역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어린이집 등 총 570여 개 집단급식소 등이다. 사업은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경우 많은 인원이 함께 식사하는 만큼, 식재료와 시설,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신청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시설 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보관·운송 등 총 32개 항목에 대해 현

장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16개 업소를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이 부여되며,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식중독 예방 물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매년 운영 실태 점검 및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를 유도해 관리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운영자는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에 지정 신청서 제출 또는 관할 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제33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황

‘제33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어르신 게이트볼대회’가 송천동 전주지회 게이트볼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9일 진행된 제33회 게이트볼대회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홍성인)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는 26개팀(남성부 15팀, 여성부 11팀) 선수와 게이트볼 동호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 수상은 남성부 송천1동 한마음팀, 여성부 팔복동 셋별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준우승에는 남성부 팔복동 팔복팀, 여성부 송천1동 금모래팀이, 공동3위는 남성부 송천1동 다사랑팀, 송천2동 소망팀, 여성부 팔복동 팔복팀, 송천1동 어울림팀이 차지했다. 제33회 게이트볼대회에는 홍성인 지회장,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도희 운영위원장, 김두봉 도연합회장 등 100여명 내빈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지부, 동반성장 우수사무소 선정

생크림 찹쌀떡 수출 등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2025년도 상반기 동반성장 우수사무소로 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전현욱)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우수한 사업성상 △지장문화 및 자기개발 노력 △농업인·농축협·지자체와의 대외활동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익산시지부는 회원 농축협 지원과 금융사업 전 부문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1위, 비이자 이익 달성률에서 176.5%로 1위를 기록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다. 또 '전북농협 Superstars' 발골에서도 WM 1위, 카드 5명, 청약 3명, e금융 3명,

기업연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재들 다수 배출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였다.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는 자매결연도시 경주시와의 교차 기부를 추진하고 익산역 고향방문 행사를 통해 지역홍보와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8회 실시하는 등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지역 농축협과 협력해 익산시 농산물과 가공품의 홍보에 힘썼다. 생크림 찹쌀떡 수출(익산농협), 익산 고구마 버거 출시(삼기농협), 블루베리 축제홍보(서익산농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현욱 지부장은 "이번 선정은 직원



전북농협은 2025년도 상반기 동반성장 우수사무소로 농협 익산시지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지 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정기예금 우대금리 이벤트'

최고 연 2.85% 금리

간을 7개월로 하고 1천만원 이상 가입 시 0.2% 이벤트 우대금리가 추가되어 최고 연 2.8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행 가입 고객들의 예금자산 운용에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안전한 1금융권 예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모바일 앱 '썬뱅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내맘속 정기예금 가입 시점에 전북은행 원화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기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농촌지역 상생 협력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1일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대학생 봉사단체 학생들이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농촌지역 내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농촌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기초 건강검진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소멸위기를 겪고있는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

날짜	대학 재능나눔 단체명	인원	지역	재능나눔 내용
'25.9.11	원광보건대(동그라미)	40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이·미용, 퍼머, 네일아트, 푸드트럭
'25.9.12	경운대(사회봉사지원센터)	20	경북 구미시 옥성면	백화그리기, 대영광 led설치, 푸드트럭
'25.9.13	목포대(NTREE)	10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기초 건강검진, 응급처치 교육, 푸드트럭
'25.9.16	순천향대(사회봉사지원센터)	40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초 건강검진, 스포츠 마사지, 푸드트럭
'25.9.19	여주대(RPT)	10	경기 여주시 복내면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푸드트럭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부는 민간 기업, 지자체와 긴밀히 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 시상

(주)팜한농 김상태 반장 등 수상

안전수칙 캠페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10일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 기념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기업과 삶의 현장, 기업과 근로자의 일상, 노사화합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여점의 사진 및 동영상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1점 수상작이 선정됐다.

사진부문 대상은 (주)팜한농 김상태 반장의 '현장 작업 사진과 동영상' 부문 대상은 (주)팜한농 김상태 반장의 '4대

최우수상 사진부문은 김도기님의 '한뫼 한뫼', 영상부문은 이석호님의 '우리 모두가 기업의 주인공이다'가 수상했으며, 이 외 알프레세미 등 다수의 기업 근로자와 도민들이 입선 영예를 안았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이번 공모전의 주제처럼 근로자와 기업이 하나되어 신뢰와 소통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 현장은 행복한 일터가 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상의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재)전북테크노파크, 우수인재발굴·연구성과 확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학술발표회 개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연계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심지로 지역대학이 융복합단지 내 기업 수요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석사 61명, 박사 9명을 배출했으며, 48명 취업 연계를 추진했다.

이번 발표회는 국립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자

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논문을 발표·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논문 주제는 △풍력타워 구조 해석 △현무암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활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지 및 모듈 개발 △강화학습 기반 ESS 최적화 △해상풍력 구조 설계 △스마트 전력변환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핵심 분야를 다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학생 5명을 선정해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상을 시상했다.

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현장에 50편의 연구논문 포스터를 전시해 사업 홍보와 참여연구원의 취업 연계에도 기여했다.

이규택 원장은 "이번 우수논문 발표



회를 통해 지역 대학과 연구자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역량 결집하고, 우수 인재 발굴과 연구성과 확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전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을 통해 5년간 47.3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 남원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신용보증 교육

농림수산임업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 보증센터(센터장 이성호)는 9일 농신보 신용보증 교육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실시했다.

농신보 신용보증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후계농 대상자에 대한 농신보 업무 이해도 제고 및 농식품부 정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농신보의 역할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자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농신보 27개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

며, 농신보 남원센터는 9일 남원 컨벤션센터에서 대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으로는 농신보 개요, 보증 종류 및 보증제도, 보증신청 절차 등을 포함해 보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후계농업경영인의 실제 지원 사례를 포함하여 설명했으며, 교육 중간에 대상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림수산임업신용보증법에 따라 최대 시설자금 5억(운전자금 3억), 보증비율 95%,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를 최대 0.1%까지 우대가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LX공사-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정비 '맞손'

국토공간정보 공유 등 협업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농어촌정비와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공간정보 공유 및 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

LX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9월 10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공역사업 지적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토정보 분야 등의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역사업 적기 추진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LX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기관 간 공간정보시스템 연계·협업 방안 모색 △지적 및 공

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교육 등에 협력한다.

이에 LX공사는 토지정보 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수로 구축·인프라 현대화 등 농어촌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스마트화와 물관리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전문기관이 협업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고온 경감 기술' 준고랭지 배추 수확 앞당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준고랭지 지역에 고온 경감 종합 기술을 투입해 여름 배추 생산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기존보다 한 달 빠른 수확으로 추서 무렵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배추는 주로 해발 6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데, 최근 이상기상과 이어졌기에 따른 병해충 발생 증가로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봄철 저장한 배추가 소진되는 9월 중순 이후에는 추서 수확까지 겹치며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 여름 견디성이 우수한 배추 '하라듀'를 심고 등 고온 경감 기술을 투입해 9월 수확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연구해 왔다. 준고랭지는 고랭지보다 온도가 1~3도(°C) 더 높아

10월 초부터나 배추 생산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고온 경감 기술을 투입해 재배한 준고랭지 배추는 무더운 7월부터 고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나 당 평균 무게가 3kg이 넘어 생육이 양호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준고랭지 실증 재배지에서 농가, 관계 기관, 연구자와 함께하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준고랭지 배추 재배 후회지는 967헥타르(ha)로 나타났다. 모두 기계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물 빠짐이 양호한 곳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가운데 재배 여건과 의향을 조사해 100헥타르(ha)를 선발, 준고랭지 여름 배추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해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 개시

Graphics·Writing·Quiz 학생·교원 무료 이용 수업 집중도·참여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용 SW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업환경 개선으로 교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및 참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북Graphics △전북Writing △전북Quiz 등 3종이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제작, 글쓰기 첨삭, 퀴즈·보드 활동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과 글쓰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활기차고 즐거

운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용 SW는 플랫폼 연동 보장, 중복 구독 보상 등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협업 드라이브 동시 제공 △동시 작업 인원 확대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내 모든 학생과 교원은 학교 계정을 발급받으면 9월부터 모든 서비스를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교육용 SW 지원 사업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즐거운 수업으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원광대 핸드볼팀, 전국대회 우승 영예

경희대에 역전승 거둬 며 39대36으로 승리, 역전승을 거둬며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원광대 이세민(4년)이 최우수지도자상에는 정호택 감독과 김동명 지도자가 각각 수상했다. 정호택 감독은 “운동부에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총장님과 학교의 응원과 관심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며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북핸드볼협회 김태경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전북 핸드볼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공립 유·초·특수교사 125명 선발

유치원·특수유치원교사↑ 초·특수초등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내년 공립학교 선발인원은 △유치원교사 60명(장애 4명 포함) △초등교사 58명(장애 5명 포함) △특수유치원교사 6명(장애 1명 포함) △특수초등교사 1명 등 총 125명(장애 10명 포함)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립 유치원교사는 6명, 특수유치원교사는 4명이 늘어난 반면 초등교사는 53명, 특수초등교사 9명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52명이 감소했다.

사립학교는 특수초등교사 1명을 제1차 시험에 한해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8일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12월 10일 오전 10시 발표 예정이다. 이어 제2차 시험은 2026년 1

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 발표할 계획이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올해도 임용 시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응시자들은 응시원서 접수 절차와 시험 일정,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태국 명문대·고교와 글로벌 교두보 다져

송클라프린스대학 등 교환학생·복수학위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태국 주요 대학교와 고교를 방문해 교환학생, 복수학위, 대학원 진학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유학생 5천명 시대'를 향한 글로벌 교두보를 굳건히 다졌다. 전북대는 태국 남부 최고의 명문대학인 송클라프린스대학교와 2026년 3월 학기 30명의 교환학생 파견·수용에 합의했다. 또한, 전북대학교의 다양한 학과들과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추진기로 했으며, 인문사회대와 공대 졸업생들의 전북대 대학원 진학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콕 랑싯대학교에서는 지난해 개소한 JBNU 국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과와 공동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2026년 3월 학기 교환학생



20명을 선발하고, 2026년 6월부터 랑싯대학내에 전북대 학부생 모집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맞춤형 안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레수안대학교와도 같은 수준의 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화립 전북대 국제처장은 “송클라프린스대, 랑싯대, 나레수안대 등 태국 명문 대학과 남부 대표 고교와의 협력은 전북대가 추진하는 유학생 5천명 시대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북대가 아시아 유학생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학교, 신입교원 9명 임용

박노준 총장 “대학 미래 발전 중심 역할 해주시길”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1일자로 신입교원 9명을 새롭게 임용했다. 10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열린 신입교원 임용장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성희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신입교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입교원은 △전주캠퍼스 서명희(간호학과)·최백범(수소에너지공학과)·고기연(응급구조학과)·박경란(특수교육과)·김상현(한의예과)·백



운(경영학부) 교수 등 총 9명이다. 박노준 총장은 “신입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는 물론 대학의 미래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청렴 교육

8백여 명 참석 반부패 관련 법령 정책 특강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년 행동강령책임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행동강령책임관 겸 갑질전담책임관(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학교 교원)간 8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 및 실천 의지 함양과 갑질 근절로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정책 특강 △전북교육 갑질 근절 정책 안내 △청렴 라이브 공연(청렴 팝페라) 등으로 운영됐다. 먼저 이홍열 감사관이 직접 나서 전북교육 갑질 근절 정책 4개 분야 및 갑질전담책임관의 역할인 갑질 예방교육,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청렴연수원 김세신 원장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부패·청렴의 의미와 행복한 삶, 청렴의 핵심 가치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실무적인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서부내륙권 관광 홍보 SNS 채널 개설

18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진행 재단은 댓글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26일에 발표되며, 개별 DM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을 계기로 서부내륙권 관광의 매력을 친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동네트립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은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전북 서부내륙권의 대표 관광지인 숨은 명소, 지역의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꾸준히 소개해 팔로워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군산 성산면 '아지트 앤 마켓' 착한가게 신규 가입

군산시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문정옥, 공공위원장 진미영)는 새롭게 성산면 착한가게에 가입한 '아지트 앤 마켓'(대표 박소영)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표를 표했다.

성산면 착한가게 16호가 된 '아지트 앤 마켓'은 동네의 작은 마트지만 지역 주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동네 씬터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 9일 현판을 전달받은 박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고민 끝에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라며 "우리 주민들에게 씬터 같은 동네마트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정옥 민간위원장은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아지트 앤 마켓'의 따뜻한 나눔이 이웃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돼줘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착한가게의 선한 영향력이 성산면 전체로 퍼져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아지트 앤 마켓 대표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 주신 마음이 좋은 사업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6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

익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8억 5,600만 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10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 등유 등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단가는 경유 87원, 휘발유 81원, 등유 91원 등으로 책정됐으며 총 6종의 유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소를 두고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면세유 구입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다. 단, 올해부터 농업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지금 기준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구입한 면세유 구입량의 50%를 적용하며, 농업인 1인당 최대 1만7천원까지 지원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영농 활동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직원 복지 가족까지 1박 2일 가족캠프 성료

정읍시가 직원 복지를 가족까지 확대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열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캠프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내장산 생태탐방원 일원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총 11가족, 40명의 직원 가족이 참여해 내장산 단풍 숲을 즐기는 감성여행과 숲체험, 마술 공연, 가족 화합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가족 간 유대감을 새롭게 다졌다.

시는 2017년부터 가족캠프를 매년 이어오며 직원의 복지를 가족까지 확장하고 있다. 매해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직원 가족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경험은 직원들의 직무 만족과 업무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가족캠프는 직원들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직원 복지가 가족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유수율 90.5% 익산상수도 블록화 '성과'

국비 포함 총 606억 투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연간 23억 원 절감

익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상수도관을 블록 단위로 나누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약을 맺고 국비 311억 원을 포함한 총 606억 원을 투입해 6개년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 전역의 상수도를 53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블록별 유량·수압·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수 발생 시 해당 구역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상수도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익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상수도관을 블록 단위로 나누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익산시>

특히 핵심 대상지였던 신흥읍구역을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블록화 작업을 통해 해당 지역 유수율을 기존 66.5%에서 90.5%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30만 톤(일일 6,400톤)의 누수 절감과 23억 원의 수도 생산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 성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성

과관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유수율 목표치인 85% 달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을 예정이다.

김우빈 상수도사업단장은 "앞으로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누수는 줄이고, 수도물 품질은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정우 문화이음센터 조성 첫삽

주민 접근성 개선 문화복지 거점시설 기대

정읍시는 지난 9일 정우면 초강리에서 정우 문화이음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권병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장, 내외빈과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안전기원제와 시삼식을 함께하며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정우 문화이음센터는 정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총사업비 48억 6000만원(국비 28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37.81㎡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휴식공간,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씬터도 마련된다.

센터는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동아리 발표회,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 찾아가는 공부방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돼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동체 교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복지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



정읍시 정우 문화이음센터 기공식. <사진=정읍시>

해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우 문화이음센터가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화합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제3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18명 위촉

청년 유출 등 인구문제 분석·해결 방안 모색

군산시 인구정책 자문과 대안 발굴을 위한 '제3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시민참여단은 저출산·고령화, 청년 유출 등 주요 인구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개 분과(아이키움·청년키움·고령친화)에서 총 18

명의 시민이 위촉됐다. 발대식은 김영민 부시장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1년간 시민참여단은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인구정책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시민참여단의 아이디어가 군산시 발전에 의미 있는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이 맛에 살리라, 우리들의 군산' 시민공동체 운동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우 인구 간에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유입 인구에게는 포용을 바탕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1차 소비쿠폰 기한 내 신청 당부

99% 신청 12일 마감 2차 지원 22일부터

정읍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만 571명을 대상으로 총 228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지급액은 일반 시민 2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며, 온라인(카드사·모바일카드)

과 오프라인(카드사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9월 5일 기준 전체 대상자 중 9만 9516명(99%)이 신청했고, 960명(1%)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용액은 약 178억원으로, 사용률은 79.3%다.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5.7%), 생활소비(17.6%), 패션·뷰티(12.0%)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쿠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SNS 인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는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을 개인 SNS에 #정읍소비쿠폰 해시

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55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차 지급에 이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시민 9만 514명을 대상으로 2차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원씩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고, 지급된 소비쿠폰은 조기에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17일 '주력산업 취업 박람회' 개최

12개 기업 참여·구직자 모집

군산시가 오는 17일 군산시 일자리 지원센터(구영7길 129, 영화동)에서 열리는 '군산시 주력산업 미니 취업 박람회'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

이번 미니 취업 박람회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 사업단'이 주관한다.

에너지엔지니어, 위스페이스솔루션 등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 현장은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채용존 등으로 구성돼, 단순한 채용 연계를 넘어 취업 준비와 정보 제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취업 지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단이 추진하는 '고용 촉진금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시는 '군산시 주력산업 미니 취업 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넓히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지역 고용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이현현 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멸종위기 맹꽂이, 익산 왕궁서 집단서식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들리는 맹꽂이의 울음소리가 '생명의 터전'으로의 회복을 알리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폐업으로 비어있는 왕궁축산단지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꽂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이번 발견은 자연환경 복원사업 부지를 점검하던 중 현장에서 맹꽂이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이뤄졌다. 맹꽂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보호종이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오랜 기간 축산업으로 훼손된 182만㎡ 규모의 땅을 수탈, 맹꽂이, 새 등 멸종위기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으로 복원하

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이다. 이번 맹꽂이 서식 확인은 단순한 종 출현을 넘어,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생태학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법적·환경적 명분이 강화된다. 맹꽂이는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인 만큼 왕궁 부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입증한다. 이는 향후 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가 평가 과정에서 보전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왕궁 일원을 국가적 생물다양성 회복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5대 중대재해·폭염 피해 예방 나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율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사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과 착용 철저, 계구 부 탈개와 안전간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 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폭염 대응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 준수는 물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며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현장에 적극 적용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27개 읍면동 159명 투입

군산시는 지난 6일~7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53개 관·과·소 159명의 직원을 27개 읍면동에 투입했다. 직원들은 빗물받이 및 하수구 점검 527건, 재난 피해지역 점검 347건,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8일 9시부터 시 직원, 관계 기

관,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386명이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 나가 재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주택과 도로, 농경지로 흘러내린 토사를 제거하고 산사태로 밀려온 흙더미를 마대에 담아 옮기는 등 물이 범람해 침수된 주택과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 지질명소 2곳, '천연기념물' 예고

적포리 페퍼라이트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지정 검토

부안군은 '부안 적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가 국가지질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부안군 변산면 적포리 산35-1 일원에 위치한 '부안 적포리 페퍼라이트'는 화산암과 퇴적암이 파편처럼 한데 섞인 암석을 말한다. 이 지역은 페퍼라이트의 전형적인 특징과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일반적으로 암석 경계를 따라 얇은 띠형태로 생성되는 페퍼라이트와는 달리 국내에는 보기 드물게 두꺼운 규모로 산출돼 지질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같이 지정 예고된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3-1번지 전북특별자치도대학생해양수련원으로부터 190m지점의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썰물시 육지와 연결되는 곳이다. 솔섬은 후기 백악기(약 8,700만 년 전) 부안 지역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섬 상부에 서식하는 소나무로 인해 솔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낙조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부안군은 '부안 적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가 국가지질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솔섬 하부의 응회암 내에는 마치 포도송이와 같은 형태의 다량의 구상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화산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 구상구조는 응회암이 단단히 굳기 전 열수가 모임을 뚫고 지나가면서 열수 내 철산화물이 침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독특한 화산암 구조를 볼 수 있는 솔섬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9일부터 '부안 적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를 지정 예고한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소중한 지질유산인 '부안 적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가 온전한 자연환경의 보존 상태인 국내·외 지질학계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돼 기쁘다. 앞으로도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축제 준비 '착착'

10월 29일~11월 2일 개최

고창군이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월 29일~11월 2일, 5일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고창애향씨다, 모양애향 물들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창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모양성의 빛과 색이 물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대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모양성제에서는 조선시대 재현 프로그램인 '리턴즈 1453'을 비롯해, 조선시대 축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창읍성 쌓기 챌린지와 현행 사람 선발대회가 대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MZ세대를 겨냥한 공연과 야간 프로그램,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패밀리존도 대폭 확대해

준비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읍성 위를 걸으며 소망을 기원하는 답성놀이 이벤트, 전통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모양 주막·모양 다실, 패밀리존과 워터 공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전통예술택시마을에서는 치유문화축제가 함께 열리고, 꽃정원에서는 가을꽃 향연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주요 행사장은 셔틀버스로 연결돼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올해 모양성제는 고창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과 트렌드를 반영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12일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책'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아동친화 프로그램과 체험을 마련해 금요일 오후의 특별한 행복을 선사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책 미션투어 △숲속 보물찾기 △돛자리 영화관 △영유아를 위한 유모차 드라이브 코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국악 신동의 축하 공연도 무대에 올라,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김제가 획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는 특별 퍼포먼스도 마련돼, 시민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 "아이들의 웃음이 곧 김제시의 미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아동친화 축제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김제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운곡람사르습지, SNS 인증 이벤트 '운곡습지보물찾기' 운영

고창군은 올가을 운곡람사르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을 위한 SNS 인증 이벤트 '운곡습지보물찾기'를 운영한다.

오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운곡습지 방문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곡습지 생태공원과 오메이골 습지에 숨겨진 명소들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습지의 매력과 가치를 탐방객들이 직접 찾아보며 습지보전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공원에는 운곡서원, 반딧불이 서식지, 300톤 고인돌, 녹차미로, 나비곤충원 등 총 10곳의 명소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오메이골 습지에는 생태연못, 운곡습지 이정표, 습지복원지 등 8곳의 자연 명소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참여자는 생태공원에서 5곳, 오메이골에서 3곳을 선택해 방문하고, 각 장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한 뒤 SNS에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운곡습지의 상징인 '담비'와 '반딧불이'를 활용해 제작된 운곡습지만의 특별한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앞으로도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해, 고창이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67억 규모 '농민 공익수당' 명절 전 지급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진행 고창사랑상품권 제공

고창군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총 1만2438명으로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

농업 의 소득 여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67억 원이며, 군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폭우·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명절 소비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은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카드형으로 신청한 농업인은 본인 명의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을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한다.

고창군은 매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로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해 왔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편리하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환경실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공공성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시청상황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6~2030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고소 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 용지 정착농민 잔여축사 매입사업 등 18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안전 설명을 듣고 사

업 목적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공유재산의 공공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안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부 모두 부안군 관내 전세주택에서 같은 주소로 거주하고,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

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10월부터 오는 23일 까지이며, 부안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호우 피해 현장 방문

다수 시설하우스 피해 "신속 복구 집중할 것"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7일 새벽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위로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안을 일대와 고향 면 일부 지역에 빗물이 범람하면서 감자, 애호박 농가 등 다수의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특히 장시간 이어진 강우로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작물 뿌리 부분이 침수돼 생육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농가들을 위로하며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로 소중한 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군에서도 농가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자문·심사 등 2년간 정책 핵심 역할 수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해 구성된 자문·심사의 기구인 제2기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지역 역사, 기록학,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김제의 민간기록물 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또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제5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접수된 기록물을 심사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0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10월 시상식을 열어 부상을 수여하고, 이후 전시회를 개최해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형성하는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무허가축사 자진신고기간 운영

18일까지·19~25일 점검

전북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19~25일까지 실시한다.

이에따라, 군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축사 철거 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 등록 여부 등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군 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8일 이후에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염경선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전염병 확산, 재해 발생 시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개관

316억 투입, 이서면 혁신에 준공 유산 조사·보존·활용 거점 첫발 군·연구소 협력사업 본격 확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68)가 1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갖고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조사·보존·활용의 핵심 거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허민 국가유산청장,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위원장, 유익식 완주군의회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문화유산 관련 기관·단

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비 31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693㎡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유물 수장고,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전시관, 세미나실 등이 갖춰져 전북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활용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완주군은 연구소 건립 과정에서 임시사무소 제공, 건축 심의 행정지원, 임시 전시공간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신청사 준공은 그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연구소와의 협력사업을 한층 더 확장할 계획이

다.현재도 역사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상운리 고분군 일원의 디지털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는 완주 남계리유적 순교자(윤지충) DNA 분석 및 얼굴 복원 등 공동 연구, 사발지석 대어 및 추가 연구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개관은 완주군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 디지털 사업 및 국제적 연구 교류를 통한 완주의 문화유산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은 지난 9일 민선8기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열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출범... 군정 투명성 강화

군민 공개모집 30명 선발
공약 조정 심의·권고안 제시

완주군이 지난 9일 군정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열고, 민선 8기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 완주군민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ARS 무작위 추첨으로 1차 선발한 뒤, 2차 전화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앞으로 공약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안건 설명회(9월 16일) △분임토의 및 전체 회의(9월 24일)를 거쳐 주민참여

형 공약 조정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사항과 의견을 군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민주시민과 주민배심원' 특강과 함께 분임 구성, 배심원단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과의 약속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 운영을 통해 더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송학사 석조여래좌상,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내부 후령통·다라니·경전 등 유물 보법연화경 권4 일부, 학술가치 높아

순창군 인계면 송학사에 보관된 석조여래좌상과 그 안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의결했고, 이달 5일 전북도보에 고시됐다.

송학사는 원래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던 개심사 터에 1960년대 새로 지어졌으며,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39.6cm, 무릎 너비 27cm의 작은 불상으로, 경주 지역에서 주로 산출되는 불석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 내부에서는 △후령통 일괄(14점) △다라니(3점) △경전(1점) 등 모두 3종 18점의 유물이 나왔다. 특히 '보법



연화경' 권4 일부와 불교 진언이 적힌 다라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불상은 매부리코 형태의 얼굴, 사실적으로 표현된 귀, 그리고 오른손을 무릎에 두고 왼손을 발 위에 올린 특징적인 손 모양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각 양식으로 미루어볼 때 17세기 말~18세기 초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총옥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보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일자리지원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성과 '뚜렷'

취업 140명·알선 179건 등 실적 지역특화 포괄적 협력망 구축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실업난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25일 설립된 일자리지원센터는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구인·구직 알선, 동행면접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홍보, 일자리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고용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실업급여 상담소를 운영하며, 일자리사업 안내 및 상담, 홈페이지 관리 등 고용복지 서비스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센터의 알선 실적은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취업 140명, 구인 104건, 구직 242명, 맞춤형 알선 179건, 동행면접 54건을 기록하는 등 지역 고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노인일자리, 여성취업, 귀농귀촌, 공동체 일자리 등 순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포괄적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순창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해 순창군청, 워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시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 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고 성과'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 장관표창 1.83%로 법정 비율 크게 상회

완주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며,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완주군이 선정된 것으로, 완주군의 포용적 행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의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구매액 435억 9,500만 원 중 7억 9,794만 원(1.83%)을 구매하며 법정 구매율(1.1%)을 크게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부서별로 구매 촉구하고 실적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지역 행사에서



서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팀 부문에서도 관내 직업재활시설인 '떡메마을'이 생산시설 우수상을 함께 수상하며, 완주군이 장애인복지와 직업재활 분야에서 전국적인 선도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시설물 노후·위험요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점검

남원시는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율타과 송동배수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점검은 △구조물 균열 여부 및 노후 상태 등 안전성 점검 △관로, 밸브, 수위계 등 기능 점검 △내부 청결 상태와 방수 상태, 주변 환경 등 유지관리 및 환경 점검 등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민원서비스 향상 행정복지국장 강연 친절교육

남원시는 10일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 행정복지국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친절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민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민원 상황별 감동 예방과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감정이 아닌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응대, 따뜻하고 존중하는 대화법 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친절 응대법 교육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친절교육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민원실은 매일 2회 정기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응대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수어 인사말 교육도 병행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원인에게도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독서 어텀?' 가을 문화행사 프로그램 다채

순창군은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순창군립도서관 광장과 다목적홀에서 '가을엔 독서 어텀(autumn)?' 문화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독서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연·체험·전시·이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는 창작 뮤지컬 '책 속에 갇힌 고양이' 공연을 비롯해 △책갈피·업사이클링 클립보드·핸드폰 스트랩·다용도 꽃이 만들기 체험 △'책에 나를 담다' 독서문화진흥공모전 수상작 전시 △옛 책 복제본 전시 '도서관, 역사를 기록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 △행운의 퐁펑 돌리기 △도시·잡지 나눔 △두 배로 대출 △원데이 클래스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독서 친화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두 배로 대출 서비스'와 '연체자 대출정지 해제 서비스'는 9월 한 달간 상시 운영되며, 나머지 문화행사는 9월 27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프로그램(어린이 뮤지컬, 원데이 클래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기재부 방문...국비 확보 총력전

국회 심의 앞두고 협력 요청 도자전시관 건립 증액 등 건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남원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차 방문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0일 기재부를 찾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적극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우선 도자전시관 건립(문체부, 총사업비 170억원) 관련 정황우 사회예산심의관과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국토부, 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국토부, 43억원)과 관련해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미래 드론사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 필요성과 국제대회 유치 효과를 강조하며 국회 단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부지 교환 건에 대해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과 면담하고,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퍼스의 성공적인 개교와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부지교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경찰청, 442억원)과 관련해 마용재 국유재산조과장을 만나 경찰의 교육·연구·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설명하고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재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 남원의 미래 성장동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종사자주민 등 300여명 참석 유공자 표창·화합 퍼포먼스 진행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가 10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익식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버스킹 '필링'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이웃돕기 후원기관 감사패 전달, 완주군 사회복지인 화합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김진형 MC 사회로 댄스공연, 트롯트 가수 김용진씨의 공연, '프레이즈컴퍼니앙상블'의 팝페라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완주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복지인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성폭력 예방 어린이뮤지컬 성료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들쭉들쭉 정글숲' 찾아가는 안전 뮤지컬을 공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후원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며 남원시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동물 인형을 소재로 한 성폭력 예방 안전 뮤지컬로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약 600명이 관람했다.

공연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내 몸의 소중한 함을 알고,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혔다. 함께 관람한 교직원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신나는 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안전 수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영숙 센터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성공적인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교육적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멜론 배지배배로 연작장해 예방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온실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멜론을 시범적으로 양액재배한 결과 무게 2kg 내외, 평균 당도 14brix 이상의 상품과가 생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 멜론 농가에서는 토경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토양에 반복 재배할 경우 토양전염성 병해충 발생, 생육 저하, 수량 감소 등 연작장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토양(코코피트)을 사용한 양액재배로 멜론을 재배했으며, 안정적인 상품과를 생산을 통해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배지배배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여성 대상 전통음식 요리교실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영민)는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장수군 내 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진행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요리교실에서는 '저염·저당'을 주제로 명절 음식 체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한 저염쌈장과 쌀강정을 직접 만들어보며 명절 음식이 지닌 의미와 전통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습관 개선 방법을 익혔다.

조리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음식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격적인 요리활동에 앞서 위생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손 씻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습득하며,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방법을 배우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수칙을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주여성은 "명절에 먹는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해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신덕면, 추석 맞이 상사봉 등산로 정비 완료

임실군 신덕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사봉 등산로 11km 구간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산행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유한철)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명절을 맞아 등산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객들의 안전 관리에 집중했다.

이번 등산로 정비는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덩굴류로 인한 주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고, 계단과 데크 주변의 시야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었다.

상사봉은 신덕면을 대표하는 자연 관광지로 추석 명절에는 산소를 찾는 성묘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아 등산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18홀 규모 장계파크골프장 개장

19억 8500만원 투입 장수군 최초 개장 군민 숙원사업 완성

장수군은 장계면 장계리 527-78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계체육공원에 18홀 규모의 장계파크골프장을 군 최초로 지난 9일 개장했다.

장계파크골프장은 군 내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군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군 최초로 개장해 군민 숙원사업 완성과 여가활동 새 거점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회의장, 군의원, 도의원,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및 지역 단체 인사 및 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개장식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선수단이 참여한 친선경기도 함께 열렸으며 티프 커팅, 기념 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됐다.



장수군은 장계면 장계리 527-78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계체육공원에 18홀 규모의 장계파크골프장을 군 최초로 지난 9일 개장했다 <사진=장수군>

장계파크골프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9억 8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장계체육공원 부지 13,384㎡에 18홀 규모로 군민의 여가환경 개선과 건강한 생활지원을 목표로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장수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번암과

코골프장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며 장수파크골프장도 내년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군은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역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 '최우수'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점검 실효성 등 5개 분야 두각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된 무주군은 자타공인 '안전 관리 선도 지자체'가 됐다.

무주군은 드론,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전문 장비 활용도를 82%까지 끌어 올리면서 점검 실효성을 높여 호평을 받았다.

이 외 △점검 대상 선정의 적절성, △점검 결과 이력 관리 및 후속 조치, △안전 문화확산 성과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층 평가에서도 14개 시·군 가운데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균정 소식지에 가정용 자율점검표를 게재해 배부하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의 의미는 무주가 주거지로도, 관광지로도 안전한 고장임을 보여주는 믿음직한 지표라는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무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무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고용 희망 농가 필수 사전교육

임실군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일 오수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군청 설명회까지 모두 100여 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5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2026년부터 개정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계절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농가와 더불어 신규 농가가 방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근로자 선발 및 매정 절차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안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개정 사항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 차별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고용주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편,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67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80%가 넘는 재고용으로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사업 확대를 위해 9월 말까지 고용주 수요 조사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방지 노무사 상담, 긴급 의료비 편성, 농작업 가이드북 모국어 번역본 배포 등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68억을 투자하여 90명 수용가능한 30실 규모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착공, 내년 3월 준공 후 운영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상수도 관세척 완료 ... 맑은 물 복지 확대

진안읍 단양리 일원서 실시

진안군은 지난 9일 21시 진안읍 단양리(북부마이산) 일원에서 실시한 관세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세척은 노후된 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물의 안정성과 수질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수압을 이용한 피그세척 방식과 신기술을 비교 검토하여, 수도물의 탁도개선 효과, 세척 효율

성, 작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2024년에는 월운 급수구역인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 일대에서 상수도관 44.1km에 대해 상수도관 내부에 쌓인 침전물 및 이물질 등을 제거했다.

급년 상반기에는 삼락 급수구역인 안천면, 용담면, 산암 급수구역인 북부마이산 일대에서 20.1km에 대해 관세척 작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진안·마령면 일대 10km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늦은 시간에도 직접 세척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 공무원과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관세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2개 지구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병행 하여 군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반디체험존' 인기

특별한 체험유익한 전시다양

지난 6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과 함께 손님맞이에 분주해진 무주상상반디쇼 '반디 체험존'이 다양한 체험 거리와 유익함으로 연일 방문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무주상상반디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자리를 잡은 체험 부스는 모두 12곳으로, 지하 1층에서는 '우드버닝 도어벨 만들기', '기후위기 목공체험', '액션그룹 홍보 및 공예 품 판매', '티셔츠&캡 인쇄 포토 프레스 체험', '이동건강체험장', '세계민속 의상 입어보기'와 함께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캠페인'을 즐길 수 있다.

'이동건강체험장'에서는 요일별

주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1일에는 '오늘부터 금연 1일', 13일과 14일에는 '튼튼 무주 건강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무주상상반디쇼 지상 1층 실내에는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서 준비한 '환경사랑바자회'와 '반딧불 감정 기록 키팅 만들기', '나무 오키나-슬라임 만들기', '린넨 인형·코사지 만들기'를 즐길 수 있다.

1층 출입문 입구에서는 '친환경 고체 방향제 만들기'와 '친환경실천 포토존'이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6일 개막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14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5년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7,350여명 32억 원 지역화폐 지급

장수군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수당은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

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장수군은 최종 7,355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 경영체는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씩 총 32억 3,200만 원을 장수사랑상품권(정책발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은 군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11일부터 17일까지 읍·면별로 집중적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며, 이후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진안군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륙 중 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랜 세월 농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고장이지만, 용담댐 건설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이다.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약 1만 2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논밭과 마을은 물속에 잠겼고, 군민들은 고향과 더불어 삶의 기억과 정체성마저 상실했다.

그러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용담호는 오늘날 전북특별자치도뿐 아니라 충청권·대전권까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지원 시설이

되었음에도, 군은 여전히 수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재정자립도 최하위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수몰 피해라는 역사적 희생을 감내한 군민들에게 정당한 희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진안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용담호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진안군민에게 정당한 희생의 가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예수병원, 보건지소 파견 진료 업무협약

무주군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과 업무협약(8. 29.)을 맺고, 그동안 공중보건지소가 부재 상태였던 적상보건지소에도 전공의를 파견하게 됐다.

무주군보건지소위원회에 따르면 파견 전공의는 9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들과 만나 진료와 환자 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화 무주군보건지소 의료지원과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군 북부 기간 단축과 군의관 우선 선발 등의 영향으로 공중보건지소 배출 인원이

급감하면서 무주군도 공중보건지소 2명이 5개 보건지소를 순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예수병원과 협력해 1명의 파견 전공의를 진료에 투입하게 되면서 3명이 보건지소 진료를 하게 되는 등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고 또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예수병원과 협력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군지사협, 홀몸 어르신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 진행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와 어르신행복분과가 지난 2일과 9일, 완주군 고산 안전교육종합체험관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홀몸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재난안전, 화재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통안전체험에서는 횡단보도 건널 때의 주의사항과 보행자 사고 예방 수칙을 익혔으며, 재난안전체험에서는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재안전체험에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대피 훈련이 진행돼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여 어르신들은 "평소 TV에서만 보던 안전수칙을 직접 해보니 기억에 오래 남는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9월 한 달 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 지구구해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체험하며, 환경 보호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체험 '바디워시 비누 만들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테라리움 제작 △현악 리듬 디자인 및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은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주시배구협회, 소아암 환우에 기부금 885만원 전달

3가정에 295만원씩 지원

전주시 배구협회(회장권한대행 강숙자)는 10일 전주시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 3가정에 각각 295만 원씩의 기부금 885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강숙자 전주시배구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배구를 통해 모은 따뜻한 마음이 환아와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나눔 대회를 개최해 더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전주시배구협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2025 전주시 동호인 소아암 환우 돕기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배구

협회 관계자와 선수단 등이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기부금은 전주시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 3가정에 각각 295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강숙자 전주시배구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배구를 통해 모은 따뜻한 마음이 환아와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년 정기적인 나눔 대회를 개최해 더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전주시배구협회

/정혜민 기자



법무법인 비케이에스, 대한적십자사 '쓰쓰이가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매일 일정 금액 후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비케이에스(대표 방극성)가 '쓰쓰이가바른기업' 모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방극성 대표는 2023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정기적인 후원

을 이어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참여를 통해 개인을 넘어 법인의 차원에서 나눔을 확산하게 됐다.

방극성 대표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적십자와 함께 왔는데 이번에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동참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부안 보안면 최병하 향우, 성금 500만원 기탁

부안군 보안면 출신의 최병하 씨는 지난 9일 보안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최병하 씨의 뜻에 따라 관내 8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10만원씩 배분될 예정이다.

최병하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석 명절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전

했다. 이에 보안면장(이철기)은 "기탁해주시는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최병하씨는 지난 7월에도 중북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삼계탕 300수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부안=신성수 기자



전주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 전개

전주시보건소는 '2025년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생명나눔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9월 둘째 주 1주일 동안 운영되는 '생명나눔 주간'은 보건복지부가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보건소는 올해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이날 10일에 한국전통문화전당 원형마당에서 전주시민을 대

상으로 전주 서원시니어클럽 생명나눔 서포터즈 사업단 참여자들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생명나눔이라는 작은 씨앗을 함께 심고, 희망으로 피워내는 뜻깊은 약속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남원 죽향동, 자매결연지 광양 다압면 방문... 우호 교류 이어가

남원시 죽향동(동장 임정숙)은 지난 9일, 자매결연지인 광양시 다압면을 방문하여 우호 교류를 이어갔다.

죽향동장을 비롯한 죽향동 방문단은 먼저 다압면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오는 10월 열리는 남원 3대 가을축제(2025 국제 드론제전, 제33회 흥부제, 남원국가유산여행)를 소개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남원시의 첨단과학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압면 이장 회의에 참석하여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가을 축제 홍보활동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및 남원시의 주요 현안인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나누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죽향동 관계자는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는 지역 간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장애인복지재단, 독거노인에 식품꾸러미 전달

10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식품꾸러미 20개가 전달됐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한국장애인복지재단(지회장 송광득)이 기탁한 것으로 햇반, 라면, 짜장, 카레, 김, 참치 등 간편하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됐다.

식품꾸러미는 조리와 식사가 어려운 고령층 20가정에 전달돼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득 지회장은 "홀몸 어르신들이 끼니를 든든히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윤정 평화동장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해주신 귀한 물품을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一事一言〉



단 한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한국은 수십 년째 자살률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살 공화국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자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회피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나 노력을 거의 포기하거나 체념한 듯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인지 2025년 8월 17일 <머니투데이>는 「자살방지사회 1편 : 광각한 자살률 1위 오명」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국민 34만여 명이 자살했다. 매년 1만 1000여 명 꼴이다. 지난해에 36만여 명이 자살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이 20명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5.8.17)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0명, 2003년 20명, 2009년에 30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자살률은 지난 30년간 지속해서 높아졌고 2011년에 31.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의 잠정 자살률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8.3명으로 2013년(28.5명) 이후 11년 만에 28명을 넘어섰다. 1994년 이후의 30년간 자살자는 33만 9035명인데, 이것은 인구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5곳(인천 강화군, 강원 홍천군, 강원 삼척시, 전남 고흥군, 충남 부여군)의 지난달 말 인구 합계(31

만 5702명)보다 2만 3333명이나 많은 수치다.

한국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소도시 하나가 소멸할 정도로 자살자의 수가 많았고 지금도 하루에 평균 40명, 36분마다 1명씩 자살(지난해 자살자는 1만 4439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해 애써 회피하거나 외면하면서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살률은 삶의 질 저하, 특히고립적 생존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7년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2002년의 신용카드 대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 1~2년간 자살률이 크게 높아졌다. 20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자살률이 상승했다. 이런 통계는 자살률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자살 문제에 손을 놓은 결과 한국에서 자살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자살은 20년 넘게 암과 심장질환, 폐렴 등과 함께 5대 사망원인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비중이 큰데, 2023년 통계에 의하면 10~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였고 40~50대에서는 2위였다.

한국인들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 자살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한국은 2007년과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

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23년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고 있다(사단법인 기본사회 편집위원회,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2024, 밑말, 79쪽). 올해의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접하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건데,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2025년 7월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자살하는 반면 아이는 낳지 않는 한국을 인구소멸에 의해 멸망할 국가 1순위로 꼽는다.

일단 자녀 양육이나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나 노력의 문제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의 행복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돈을 곧 행복으로 보는 물질주의적 행복론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전 인생을 돈을 버는데 갈아 넣지만 (실사 돈을 버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더 멀어져만 간다. 한국인들이 행복을 돈에서 찾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인간관계 약화다.

한국에서는 개인 간 생존경쟁과 서열경쟁이 전 사회에 일반화된 결과 가족관계도 약화되었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을 포함하는 17개 선진국의 성인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을 1위로 꼽았지만, 오직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가족 내 인간관계가 크게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새만금이 선도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제시했다.

최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전북이 향후 100년의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무대였다.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이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북의 의지와 청사진을 국내외에 분명히 선보였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퉀 참여하면서 세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뒤쳐질 수 없다. 전북이 선제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까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집약될 수 있는 새만금 지리적·자원적 이점을 갖춘 최적지다.

이번 박람회는 RE100의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미래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AI와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 글로벌 혁신 모델 등을 논의한 RE100 포럼을 비롯해 수소·풍력·분산에너지 분과 토론회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전기공사,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국해양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비전을 공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도내 대학

의 석·박사급 연구 성과 전시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차세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전북도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성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학계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다. RE100 산업단지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산학연관 협력은 물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혁신,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송배전망 확충, 수익성 확보 같은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중앙-지방 간 협력 없이는 RE100 산업단지가 선연적 구조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전북이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실질적 투자 유치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래 청사진’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희망의 땅이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RE100 실현의 길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됐다. 전북이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새만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의 최전선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RE100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문화재 열전



태봉사삼존석불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 시대 - 백제시대
- 소재지-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347-26 (연동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09.11 목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잠지 / 오탁번

할머니 산소 가는 길에
밤나무 아래서 아빠와 쉬를 했다
아빠가 누는 오줌은 멀리 나가는데
내 오줌은 멀리 안 나간다
내 잠지가 아빠 잠지보다 더 커져서

내 오줌이 멀리멀리 나갔으면 좋겠다
옆집에 불 나면 뽀뽀뽀 불도 꺼주고
황사 뒤덮인 아빠 차 세차도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호호호 웃는다
네 색시한테 매일 따스한 밥 얻어먹겠네

시인 약력 : 1943년 충북 제천 출생.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년간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66년 동아일보 동화 부문, 1967년 중앙일보 시 부문, 1969년 대한

일보 소설 부문 등 신춘문예 3관왕으로 등단했다. 제12회 한국문학작가상,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고 2010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1998년 시 전문 계간지 '시안(詩眼)'을 창간했고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냈다.

하루의 시작 전북타임스와 함께

JEONBUKTIMES

하루의 소식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구, 노블레스웨딩홀 5층

봉사 1만 시간, 재난 현장마다 희망 전하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전북도협의회 정하복 회장

“적십자 송고한 사랑 널리 알리며 여생 다하겠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전북도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정하복 회장은 이렇게 다짐한다.

2006년 남원 지산봉사회 활동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그는 줄곧 재난 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봉사 1만 시간을 채워왔다.

정 회장은 봉사의 시작을 “남을 도울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이후 남원시협의회장, 전북도협의회장까지 맡으며 발걸음을 넓혀왔고 지금은 5천여 명 봉사원과 200여 단위봉사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자리했다. 그의 발자취에는 굵직한 재난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2020년 심진강 독 봉기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그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한 달 넘게 현장을 지키며 세탁 봉사와 급식 지원을 진두지휘했다.

사태2터널 화재, 남원의료원 화재 등에서도 누구보다 앞서 피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땀을 흘리던 그의 모습은 봉사가 곧 대가 없는 헌신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처럼 현장을 지켜온 경험은 그에게 뚜렷한 철학을 남겼다. 정 회장은 “진정한 적십자운동은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북 적십자봉사회는 다문화가정 결연, 치매 예방, 취약계층 지원, 재난 구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쉬 없이 달려왔다.

120년에 이르는 적십자의 역사 속에서 전북 봉사회가 보여준 실천은 지역사회의 인도주의를 지

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체활동의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최근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율성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면서 정직과 순수성이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봉사의 핵심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정직과 투명성이라고 본다. 작은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하게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야말로 봉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북 적십자봉사회 운영에도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약 5천 명의 봉사원들이 외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회비를 내고 활동에 참여한다.

정 회장은 이러한 문화 덕분에 단체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헌신과 신뢰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봉사회를 움직여온 원동력은 ‘정령’과 ‘자발성’이라는 두 축이었다.

60이 넘는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남원에서 전주까지 오가며 현안을 챙기고, 행사장을 찾아 봉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무거운 짐을 직접 나르며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주변인들은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 회장은 “우리 사회는 큰 재해가 닥쳤을 때만 관심이 집중되곤 한다”며 “평소에도 재난 대비와 봉사, 기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다. “여생을 마치는 날까지 적십자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재난의 현장에서, 또 일상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걸어나 그의 발걸음은 오늘날 전북 곳곳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장정철 기자



이제 임실 2025 임실 방문의 해 Visit Imsil year

임실N치즈축제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아쿠아페스티벌

